
고등 독서를 준비하는 중학생을 위한 철학 독해 집중 과정 · 5회 완성

Kant

×

수능

수능으로 읽는 칸트,
칸트로 읽는 수능

어려운 칸트, 수능 지문으로 이해한다.

어려운 수능, 칸트 철학으로 뚫는다.

인식하는 인간 → 동일한 인격 → 도덕적 주체 → 미적 판단자 → 공적 시민

수능·평가원·LEET·대학논술 18편을 하나의 서사로 읽는다.

강좌 소개

칸트는 수능 독서 지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개념을 따로 외우고, 지문을 따로 읽습니다.

이 강좌는 그 둘을 하나로 묶는 **고등 독서를 준비하는 중학생을 위한 철학 독해 집중 과정**입니다. 수능 지문이 칸트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칸트 철학이 수능 지문을 독해하는 렌즈가 됩니다. 지문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훈련합니다. **이분법과 방향에 기반한 벡터 리딩(Vector Reading)**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논증 구조를 추적하는 로지컬 리딩(Logical Reading)**으로 필자의 사유를 따라잡니다.

매 회차마다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철학 발췌문과 강사 해제 자료**를 함께 읽으며 수업과 연결합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18편의 지문 읽기를 바탕으로, **각자의 관심에 맞춘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수업의 흐름 — 하나의 인간학적 서사

01	02	03	04	05
인식	자아	도덕	미학	사회
어떻게 아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어떤 사회인가

01

순수이성 · 인식론

경험을 넘어서는 이성

경험한 것만으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2011 연세대 논술

2009 고3 학력평가

2010 고3 학력평가

2007 수능

2008 9월 평가원

02

상상력 · 인격론 · 자아

상상력에서 인격 동일성으로

시간 속에서도 동일한 '나'는 어떻게 가능한가?

2026 수능 (최신)

2022 고3 학력평가

2016 고2 학력평가

03

실천이성 · 윤리학

의무와 자유의 윤리학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은 동기가 있어야 도덕적인가?

2020 LEET

2018 LEET

2011 고1 학력평가

2021 고1 학력평가

04

판단력 · 미학

미적 판단과 예술의 자율성

욕망이나 도덕 없이도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가?

2015 수능

2008 9월 평가원

2025 고3 학력평가

2012 고3 학력평가

정치철학 · 계몽 · 종합

계몽과 공적 자유 — 통합 논술

인간의 이기심과 갈등은 자유와 계몽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2004 수능

2008 고려대 논술

전체 통합 논제

05

수업 방법론

두 가지 독해 훈련 + 네 칸 분석법

칸트를 배우는 수업이지만, 목표는 칸트 암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글 앞에서도 문제 상황, 해결 장치, 비판 구조를 스스로 찾아내는 독자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읽기 방법 01

벡터 리딩 (Vector Reading)

이분법과 방향에 기반한 읽기. 텍스트 안의 대립 구도와 논리의 흐름 방향을 시각적으로 포착하여 긴 글을 줄거리로만 읽는 나쁜 습관을 완벽하게 교정합니다.

읽기 방법 02

로지컬 리딩 (Logical Reading)

논증 구조를 추적하는 읽기. 문제 상황 → 해결 장치 → 비판의 흐름을 따라가며 필자의 사유를 재구성해 선지 판단과 논술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매 회차 자료

철학 발췌문 + 강사 해제

매 회차마다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철학 원전 발췌문과 고품격 강사 해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독해 깊이를 확장합니다.

최종 목표

나만의 글 한 편 완성

5회의 치열한 지문 분석을 바탕으로, 코스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파트별 관심사에 맞춘 철학 에세이를 완성하고 자기 언어화 단계를 완성합니다.

네 칸 분석법 — 모든 지문에 적용하는 독해 틀

학생이 파악해야 할 내용

① 문제 상황	기존 견해로는 무엇이 설명되지 않는가. 칸트가 해결하려 한 철학적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② 해결 장치	선협적 형식 / 의무 동기 / 공통감 / 공적 이성 — 칸트는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③ 비교·비판	흄, 합리주의, 셸러, 헤겔, 가다머 등 다른 사상가들과 어떻게 날카롭게 대립하는가.
④ 파생 문제	칸트식 해결책은 역으로 어떤 새로운 한계점이나 현대적 비판을 낳는가.

하나의 인간학적 서사로 읽는 칸트

1

순수이성 · 1회차

인식하는 인간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공간·범주라는 선형적 형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 흄의 회의론이 만든 문제를 칸트가 어떻게 넘어서는지 수능 지문으로 확인합니다.

2

상상력 · 인격론 · 2회차

동일한 인격

흩어진 경험을 종합하는 '나'는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자아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2026 수능의 스트로슨·롱게네스 비교 독해로 이 물음에 답합니다.

3

실천이성 · 윤리학 · 3회차

도덕적 주체

결과가 아닌 동기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존재. 선의지, 의무, 정언명령의 구조를 LEET 지문으로 정밀하게 독해하고, 헤겔의 비판으로 한계까지 점검합니다.

4

판단력 · 미학 · 4회차

미적 판단자

욕망도 도덕도 아닌, 무관심적 만족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존재. 2015 수능의 공통감 구조, 2025 학력평가의 가다머 비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읽습니다.

5

정치철학 · 계몽 · 5회차

공적 시민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공적 이성으로 계몽을 이끄는 존재. 고려대 논술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끝으로 칸트의 인간학 전체를 자기 언어로 정리합니다.

칸트에게 인간은 **경험을 구성하는 인식 주체**이자,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는 인격**이며, **공적 이성으로 계몽을 이끄는 시민**이다.

그러나 헤겔·셀러·가다머의 비판을 고려할 때, 칸트의 인간 이해는 구체적 삶과 역사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대논제로 5회차 전체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출전 요약: 2009·2010 학평 / 2016 학평 · 2026 수능 / 2020 · 2018 LEET / 2015 수능 · 2025 학평 / 2004 수능 · 2008 고려대 논술)

강사 소개

슈

슈렉샘

본색문해원 원장

본색문해원에서 중학생 개념 문해 프로그램과 대입 논술을 전문 운영합니다. 공식화된 풀이 기술 대신 **텍스트의 본질적 구조와 철학적 논증을 명확히 읽어내는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 교육 철학입니다. 벡터 리딩과 로지컬 리딩을 통해 학생들이 그 어떤 고난도 낯선 지문 앞에서도 스스로 논리적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훈련 시킵니다.

슈렉샘

본색문해원

과정 · **수능으로 읽는 칸트, 칸트로 읽는 수능**
대상 · 중학생 집중반 | 문의 · **010-4835-0579**